



보도	2024.3.29.(금) 석간	배포	2024.3.28.(목)		
담당부서	은행감독국 건전경영팀	책임자	팀 장	양유형	(02-3145-8050)
		담당자	선임조사역	안상현	(02-3145-8052)

## '24.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 1. 개 요

□ '24.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5%로 전월말(0.38%) 대비 0.07%p 상승 [전년 동월말(0.31%) 대비 0.14%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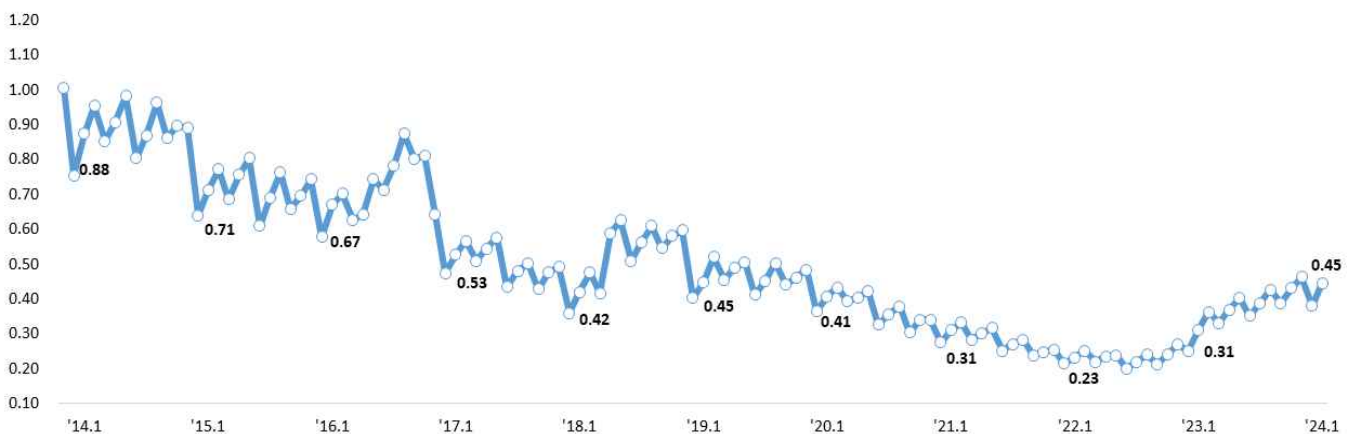
○ '24.1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9조원)은 전월(2.2조원) 대비 0.7조원 증가 하였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1.3조원)는 전월(4.1조원) 대비 2.7조원 감소

	( '22.1월 )	( '23.1월 )	( '23.8월 )	( '23.9월 )	( '23.10월 )	( '23.11월 )	( '23.12월 )	( '24.1월 )
* 신규 연체채권 규모(조원) :	0.8	1.9	2.2	2.2	2.4	2.7	2.2	2.9
연체채권 정리규모(조원) :	0.5	0.6	1.4	3.0	1.3	2.0	4.1	1.3
연체채권 증감규모(조원) :	0.4	1.3	0.9	△0.8	1.0	0.8	△1.9	1.5

○ '24.1월중 신규연체율('24.1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3.12월말 대출잔액)은 0.13%로 전월(0.10%) 대비 0.03%p 상승\* [전년 동월(0.09%) 대비 0.04%p 상승]

\* 신규연체율(%) : ('23.1) 0.09 → ('23.9) 0.10 → ('23.10) 0.11 → ('23.11) 0.12 → ('23.12) 0.10 → ('24.1) 0.13

### 원화대출 연체율 추이



※ 은행이 분기말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연체율은 통상적으로 분기 중 상승했다가 분기 말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

## 2. 부문별 현황

- (기업대출) '24.1월말 현재 기업대출 연체율(0.50%)은 전월말(0.41%) 대비 0.09%p 상승 [전년 동월말(0.34%) 대비 0.16%p 상승]
- 대기기업대출 연체율(0.12%)은 전월말(0.12%)과 유사한 수준  
[전년 동월말(0.09%) 대비 0.03%p 상승]
  -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60%)은 전월말(0.48%) 대비 0.12%p 상승  
[전년 동월말(0.39%) 대비 0.21%p 상승]
    - 중소기업 연체율(0.62%)은 전월말(0.48%) 대비 0.14%p 상승  
[전년 동월말(0.44%) 대비 0.18%p 상승]
    -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56%)은 전월말(0.48%) 대비 0.08%p 상승  
[전년 동월말(0.33%) 대비 0.23%p 상승]
- (가계대출) 가계대출 연체율(0.38%)은 전월말(0.35%) 대비 0.03%p 상승  
[전년 동월말(0.28%) 대비 0.10%p 상승]
-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25%)은 전월말(0.23%) 대비 0.02%p 상승  
[전년 동월말(0.18%) 대비 0.07%p 상승]
  -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0.74%)은 전월말(0.66%) 대비 0.08%p 상승 [전년 동월말(0.55%) 대비 0.19%p 상승]

국내은행 원화대출 부문별 연체율 추이

(단위 : %, %p)

구 분	연체율 시계열 ('14.1월~'24.1월)	'21.1월	'22.1월	'23.1월 (A)	'23.11월	'23.12월 (B)	'24.1월 (C)	증감	
								전년동월 (C-A)	전월 (C-B)
기업대출		0.39	0.28	0.34	0.52	0.41	0.50	0.16	0.09
대기업		0.36	0.24	0.09	0.18	0.12	0.12	0.03	0.00
중소기업		0.40	0.29	0.39	0.61	0.48	0.60	0.21	0.12
중소법인		0.54	0.39	0.44	0.64	0.48	0.62	0.18	0.14
개인사업자		0.24	0.17	0.33	0.56	0.48	0.56	0.23	0.08
가계대출		0.21	0.17	0.28	0.39	0.35	0.38	0.10	0.03
주택담보대출		0.14	0.10	0.18	0.25	0.23	0.25	0.07	0.02
가계신용대출등		0.37	0.33	0.55	0.76	0.66	0.74	0.19	0.08
원화대출계		0.31	0.23	0.31	0.46	0.38	0.45	0.14	0.07

\*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및 신탁대출금 기준

### 3. 평가 및 향후 감독방향

□ '24.1월말 연체율(0.45%)은 전월말(0.38%) 대비 0.07%p 상승하였고 지난해 11월말(0.46%)과 유사한 수준

※ 통상 연말에는 은행의 연체채권 정리(상·매각 등) 강화로 연체율이 큰 폭 하락하는 경향이 있으며, 1월 연체율은 전년말 연체율 큰 폭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로 상승

\* 연체율(%) : ('23.8) 0.43 → ('23.9) 0.39 → ('23.10) 0.43 → ('23.11) 0.46 → ('23.12) 0.38 → ('24.1) 0.45  
(전월대비) (+0.04) (△0.04) (+0.04) (+0.03) (△0.08) (+0.07)

○ 다만, 신규연체율이 '23년 하반기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 금감원은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은행권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여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토록 하는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